



외자계 손해보험회사에게 자동차책임보험시장 개방 결정

왕양비 연구원

■ 미국 시간 2월 14일 미국을 방문 중인 중국 국가부주석 시진핑¹⁾과 오바마의 정상회담 이후 발표된 ‘중·미 경제관계 강화 연합 성명’에 따르면 중국은 외자계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개방할 예정이다.

- 중·미 양국이 유럽재정위기 대응, 무역 불균형 완화, 환율 자유화 촉진, 상호 간 시장진입 및 기술 이전 규제 완화 등 관련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, 금융업의 공동 발전을 위해 진일보적인 시장 개방에도 의견을 같이 하였음.
- 또한, 중국이 이미 자동차책임보험시장을 외자계 보험회사에게 개방할 것을 결정했으며, 관련 법규 제정 및 개정 등 절차를 거친 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음.²⁾
- 2006년 중국 자동차 책임보험 의무가입이 실시된 후부터 보험감독관리위원회가 외자계 회사에 대해 시장개방을 검토하여 왔는데, 금번 중·미 공동성명으로 동 시장의 대외개방이 현실화되었음.

■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책임보험시장 진입이 허용되면 동 회사들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, 중국계 회사에 비해 지점 수가 적고 경험 데이터가 부족한 것이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단점이 될 것으로 분석됨.

- 현재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책임보험 판매가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개 회사의 자동차보험 상품에 따로 가입하지 않는 이상 소비자가 현실적으로 외자계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에 가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며, 동 시장의 개방에 따라 이러한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.

1) 시진핑은 중국의 차기 최고 지도자로 예측되고 있음에 따라 금번 미국 방문은 미래 10년 중·미 관계 기초 변화에 대해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음.
 2) 한편, 미국은 중국계 은행이 미국에서의 지사 설립과 업무확장을 환영하며, 중국계 은행의 법인 및 지사 설립 신청과 미국계 은행 주식매입 신청 등에 대해 타 외자계 은행과 동일한 심사기준 적용을 약속하였음(연합성명 제17조).

- 현재 중국에 진출하고 있는 20개 외자계 손해보험회사 중 자동차보험 시장에 진입한 회사는 1/2 이하이며, 동 회사들은 자동차책임보험 판매자격이 있는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와 합작하는 형식으로 임의자동차보험을 판매하고 있음.
- 현재 중국 자동차보험시장에 진입한 외자계 회사는 독일 Allianz, 미국 Liberty mutual, 일본 Sumitomo, 한국 삼성화재와 현대손해보험 등임.
- 그러나 중국계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외자계 회사의 경우 서비스망이 좁고 현지 시장 경험 데이터가 부족함.
- 또한,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 통일된 규정 보험요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외자계 손해보험회사들이 우월한 클레임수리 관리 기술로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느냐 여부는 아직 불확실하다고 분석됨.

(중국보험보, 인민망 등 2/16)